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경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분기 미 노동 비용, 예상보다 상승했다
- CNBC: 전 연방재무장관 Mnuchin “트럼프 우선은 감세와 이란 제재, 관세 정책 될 것”
- WSJ: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연준의 향방은?

[미국 관세]

- CNBC: 비즈니스 관계자들, “트럼프 관세 공약, 소비자 물가 상승 일으킨다”
- WSJ: ‘미국 수입업체들,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수입 서두를 것’

[글로벌 경제]

- CNBC: 중국, 트럼프 당선된 미국에 협력 촉구
- CNBC: 중국, 트럼프 관세 위협에 ‘추가 경기 부양책 추진’ 기대 높아져

[전기차]

- CNBC: 트럼프의 당선이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 CNBC: 트럼프, 반도체 법 지지할 가능성 높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트럼프 관세 공포,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 하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Labor Costs Rise More Than Expected in Fresh Inflation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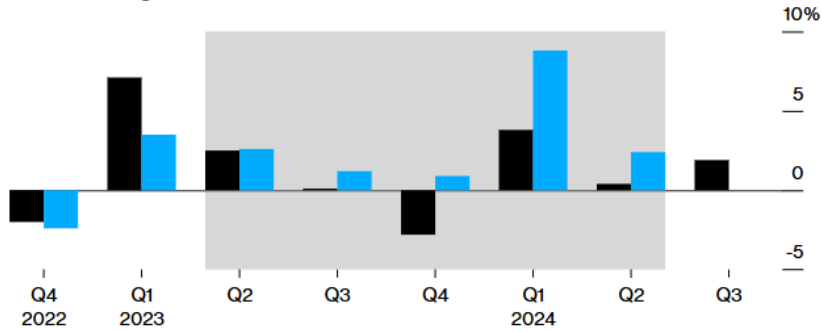
3분기 미 노동 비용, 예상보다 상승했다

- 올해 3분기 미 노동시장 비용이 놀랄 정도로 강하게 상승했다. 올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노동 비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있다.
- 오늘 연방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단위당 노동 비용은 2분기에 조정치로 상승한 후에 3분기에 연율로 1.9% 올랐다.
- 최근 수개월간 미국인들의 임금이 강하게 올랐다는 의미다. 이는 소비자들 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물가 조정치의 시간당 보수는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3% 상승했다. 지난 7분기 연속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앞섰다.

Unit Labor Costs Marked Up in Recent Quarters

Revised data poses an upward risk to inflation

■ Initial Reading ■ Revised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기사

CNBC: Former Treasury Secretary Mnuchin says Trump’s top priorities will be tax cuts, Iran sanctions and tariffs

전 연방재무장관 Mnuchin “트럼프 우선은 감세와 이란 제재, 관세 정책 될 것”

- 연방 재무장관을 지냈던 Steven Mnuchin은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감면, 이란 제재, 관세 등으로, 그의 전임 시기의 핵심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히 그는 감세 정책이 핵심인데,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관련 법 통과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WSJ: What’s at Stake With the Fed, Now That Trump Has Won?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연준의 향방은?

- 재선된 트럼프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과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는 이전에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연준 관리들을 대체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그는 파월이 연준 의장에서 내려오는 2026년에 새로운 의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 연준은 오늘 목요일 0.25%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은 12월에도 같은 폭의 인하를 시사했었다.

WSJ 기사

[미국 관세]

CNBC: Trump's proposed tariffs could raise prices for consumers and slow spending**비즈니스 관계자들, “트럼프 관세 공약, 소비자 물가 상승 일으킨다”**

- 소매 업계 분석가들과 비즈니스 단체들은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 정책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 회사 Five Below, Crocs, Skechers, Amer Sports와 American Eagle Outfitters 등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E.l.f. Beauty의 CEO는 트럼프 첫 임기 때에 부과한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 공약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WSJ: Trade Sector Eyes a New Wave of Tariffs Under Trump**‘미국 수입업체들,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수입 서두를 것’**

- 선박 회사와 소매업체들,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공약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서둘러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 회사들과 미국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가져오는 제조업체들과 소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관계자들은 일부 회사들이 트럼프 2기에 관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에 상품을 서둘러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트럼프 당선 직후 Maersk 등 주요 선박 회사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미국내 물동량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럭킹 회사들과 화물 회사들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China urges U.S. cooperation as Trump trade threat looms**중국, 트럼프 당선된 미국에 협력 촉구**

- 중국이 트럼프 당선 하루 만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늘리고, 협력을 확대하며, 갈등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Yue Su는 내년 상반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나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면, Invesco의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시장 전략가 David Chao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안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 새 행정부는 미국산 대두 구매 증가나 지정학적 양보 등을 얻어내기 위해 관세 추가를 보류할 것이다. 트럼프의 60% 관세 정책은 다국적 기업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CNBC: Trump win and threat of more tariffs raises expectations for more China stimulus

중국, 트럼프 관세 위협에 ‘추가 경기 부양책 추진’ 기대 높아져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경제 계획 기관(China’s economic planning agency)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Zhu Baoliang은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수출이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중국 GDP가 1%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Yue Su는 10조 위안(약 1.39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을 예상했다. 이 중 약 6조 위안은 지방정부 채권 교환과 은행 자본 확충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4조 위안 이상이 부동산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특별채권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전기차]

CNBC: What Trump’s election to the White House could mean for EVs 트럼프의 당선이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

- 공화당과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는 환경보호청(EPA)의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법(IRA)과 같은 전기차 인센티브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었다.

-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IRA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행정 명령 등의 조치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천5백 달러를 제공하는 연방 소비자 세액 공제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디트로이트'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 스텔란티스가 트럼프 승리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2020년대 말까지 탈탄소화와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던 환경 규제가 축소되거나 제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NBC 기사

[반도체]**CNBC: Trump likely to uphold CHIPS Act despite his campaign rhetoric, policy experts say****트럼프, 반도체 법 지지할 가능성 높다**

-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는 반도체 법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반도체 법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8월 통과된 반도체 법에 따라 미국은 약 53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반도체 법에 따라 대만의 TSMC, 삼성, 인텔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에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각각 66억 달러, 64억 달러, 8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 트럼프가 해당 자금의 배분과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어 할 순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인다.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회장 Adam Posen은 “트럼프는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배분하기 위해 반도체 법을 재해석할 것이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중국 관세는 유지하면서 산업 정책의 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BC: Foreign automaker stocks slide on Trump tariff fears****트럼프 관세 공포,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 하락**

-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수요일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 주식이 하락했다.
-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식은 각각 6.5% 하락했다. 포르쉐는 4.9%, 폭스바겐은 4.3% 하락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Li Auto와 Nio도 각각

3.3%와 5.3% 하락했다.

- 트럼프는 여러 차례 추가 관세에 대해 말했었다. 특히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생산 비용이 저렴한 멕시코를 선택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었다.
- 혼다의 부회장 Shinji Aoyama 관세 인상에 다른 비용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혼다는 매년 약 20만 대의 차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그 중 약 16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다.
-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과장된 발언이라고 추측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었다.
- Wolfe의 분석가 Emmanuel Rosner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새로운 관세를 예상하지 않는다. 다만 무역 불확실성이 자동차 주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

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다우 3.6%↑
다우·S&P500 2년만에 최대폭 상승...감세·규제완화 긍정여파 기대
달러화 강세에 비트코인도 최고치 경신...인플레 우려에 美 국채금리는 급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 (3.57%) 오른 4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